

목포시-목포시공무원노동조합, 청렴 실천 협약

투명·공정한 공직사회 조성 공동 노력 다짐 부패 없는 청렴 목포를 위해 솔선수범할 터

목포시가 12일 목포시공무원노동조합과 청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홍률 목포시장과 4급이상 간부공무원, 박상완 목포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집행부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

목포시와 목포시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렴 실천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하고, 청렴 도약을 위한 굳건한 의지를 표명했다.

협약 내용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추진 ▲부정부패와 부조리 관행 척결 ▲소통을 통한 반부패·청렴 활동 공동 노력 ▲시민으로부터

터 신뢰받는 '청렴 목포' 실현 등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번 협약이 노·사가 함께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어,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목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완 목포시노동조합위원장 또한 "노·사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함께 노력하여 청렴과 공무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정책추진단 구성, 청렴 음악방송 송출, 청렴 자



가학습 시스템, 청렴 알람톡 운영, 자정 평가를 위한 공직자 청렴 설문조사 실시 등 다양한 청

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영광군, 고품질 논 콩 안정 생산 재배기술 교육 실시

영광군은 지난 7일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고품질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하여 논콩 재배 농업인 및 희망 농업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논콩 안정생산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국 최고의 논 콩 재배지로 알려진 전북 김제의 죽산농업농조합법인 이사이자 국립식량과학원 명예연구관인 한은성 이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진행하였으며, 논 콩 안정 생산을 위한 물관리, 잡초관리, 시비관리 등 안정 생산 및 다수확 재배기술을 중점으로 경험과 비법을 공유하며 추진했다.

한 이사는 콩은 습해에 약해 논 재배 시 배수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배수와 토양의 특성을 잘 이용하면 밭 재배보다 더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으며 논에 벼 대신 콩을 재배하면 수확량이 230kg/10a 이상 생산할 경우, 벼와 견줘 더욱 높은 소득을 낼 수 있다고 전했다.

영광=서희권기자



함평군,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 투자선도지구 현장점검

함평군은 지난 10일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 투자선도지구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함평군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남도 등 관계부처 공무원 15명이 참석했다.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는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발전촉진형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돼 주민의견 수렴, 전문기관 검토 등을 거쳐 2020년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지정·고시됐다.

군은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5백억(국비 83억)원을 투입, 총 32만㎡ 부지에 농공단지 진입로, 테마공원, 음식특화거리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테마공원, 산업관광 플랫폼 등의 기반 시설을 조성하며 나비대축제 등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테마형 관광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사업이 완료되면 3백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1천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투자선도지구는 지난 2015년 지역개발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낙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발전촉진형'과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점육성형'으로 나뉜다.

함평=김광춘기자

영암·독천 5일시장 품물공연행사 진행

오는 15일부터 6월까지 오후 12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각 5회

영암군은 이달 15일부터 6월까지 영암5일시장과 독천5일시장에서 품물공연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품물공연은 군이 지역경제와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가 올해 다시 재개된 것으로, 해당 시장의 장이 열리는 날에 진행될 예정인 품물공연은 오후 12시 30분부

터 14시 30분까지 각 5회씩 진행된다.

이에 따라 영암5일시장은 4월 15일, 5월 5일, 5월 15일, 6월 5일, 6월 15일에, 독천5일시장은 4월 29일, 5월 9일, 5월 24일, 6월 9일, 6월 24일 행사가 개최되며, 각설이와 지역가수 공연을 중심으로 지역 동아리 발골을 통한 지역 참여형 행사로 운영될 예정이다.

영암=조대호기자

신안군 '섬 수선화 축제' 성료

11일간 작은 섬 선도로 1만 3천여 명 다녀가



신안군은 작은 섬 선도에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9일까지 11일간 열린 "섬 수선화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신안의 봄, 수선화 향기 따라 떠나는 힐링 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신안군에서 개최된 첫 번째 꽃 축제로 전국에서 1만 3천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전국

최대규모 면적(13.4ha)에 심어진 수선화 재배단지, 수선화 정원, 수선화 할머니 집에 축제 기간 동안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섬 지역의 특성상 해상 날씨와 불편한 교통 여건에도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선도를 방문하였으며 특히 이번 축제는 섬이

조성되기까지의 스토리와 주민들의 노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선도 사진관' 전시와 '세상에 하나뿐인 꽃팔찌', '꽃가방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과 주말 버스킹 공연이 진행되어 축제를 찾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신안군은 축제는 마무리되었지만 4월 말까지 증편된 여객선 운항으로 여행객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으로 축제 기간을 놓친 방문자들은 이 기간동안 수선화를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남 추진위원장은 "축제 기간동안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수선화의 섬 선도에서의 여행이 올 한해 내내 아름답고 소중하게 기억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제 작은 섬 선도는 전국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바다와 꽃이 어우러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선화의 섬으로 자리매김 되었으며, 이번 축제로 매년 봄의 전령사로 그 향기와 자태가 아름다운 수선화가 활짝 핀 선도가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방문하게 될 손꼽히는 봄의 관광지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덕주기자



무안군, 산림 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추진 본격화

무안군은 예기치 못한 잦은 기후변동에 따른 여름철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등 산림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방사업을 4월 중 본격 착수한다.

사방사업이란 산이나 강가, 바닷가 등지에 토사가 비바람에 유실되거나 붕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공작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사 종류에 따라 산지사방, 사방댐, 계류보전, 해안방재법 등으로 구분된다.

올해 무안군이 확보한 사방사업비는 국비 7억, 도비 1억 5천 포함 총 10억여 원으로 계류보전 2km 및 해안 침식방지 2개소가 예정되어 있다.

군은 도 설계심의, 계약심사 등 일련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4월 중 사업에 착수하여 본격적인 우기 이전인 상반기 내 관련 사업들이 준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무안=이기성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뀐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